

# Bénin(베냉)을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since 2017

김민호, 양성진(다엘, 하겸, 라준) 선교사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니이다(수 14:12)

## ▶ 베냉 소식: 12월 7일(주일) 갑작스런 쿠데타 기도

베냉의 경제 수도 코토누에서 일단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방송국을 장악한 이들은 쿠데타의 명분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미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만이었고, 정부군의 발빠른 대응으로 쿠데타를 시도한 이들은 얼마 안되어 대부분 체포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동자는 현재 도피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일 새벽 이른 시간에 군대의 주요 지휘관의 자택 몇 곳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고, 몇몇은 그들의 인질이 되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음 날 풀려났습니다. 주일 아침에 소식을 듣고 뉴스와 선교사님들의 카톡을 확인했지만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베냉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쿠데타가 발생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냉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베냉은 남부와 중북부의 종교적(이슬람), 인종적(주요 종족 아님), 정치적 색깔(야당)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중북부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쌓여온 소외감과 분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쪽에 살고, 주로 교류하는 이들도 주요 부족이었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하진 않았나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누리던 평화가 오늘도 당연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평화는 신기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에 많이 익숙해진 나머지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베냉에 평화를 주시고, 쿠데타와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질서 있게 민의가 반영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베냉은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유지되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좋은 전통이 깨지지 않도록, 익숙함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도록, 대사관이 없지만, 이런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나름의 절차와 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긍휼의 마음' 고아원과 돌봄 사역 보고

1) 고아원 정부 인증 절차 마무리 단계: 11월의 어느 날, 정부 인증 절차가 거의(99% 이상) 마무리 되었다는 관계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증을 해준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황당했습니다. 오래 지켜보고 고민한 끝에 빠른 시일 내에 고아원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돌봄 센터 사역에 더욱 집중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오는 친구들을 40명으로 늘린지 얼마 안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막상 기대하던 그 순간이 다가오자 믿음이 약한 선교사의 심장은 또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앞둔 부엌

튼튼하게 설치된 정문

천연재료로 만든 울타리

이제는 고아원을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추가로 소요될 재정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믿음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사역인데, 이건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인데, 마치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한껏 쪼그라든 맘을 보니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 중에는 인증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아원은 여러 공사가 진행 중인데 (부엌 마무리, 울타리 보수, 입간판 설치 등), 이 일들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재정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센터 활동:** 센터에서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관련된 활동도 진행하고, 요새는 아이들의 수학 문제를 출력해서 학년에 맞춰 풀기도 하고, 성경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기도 하고, 고학년 아이들은 최근에 신약 성경 성경 필사도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처음으로 소소하게 생월자 파티도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일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 생일 파티를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축하 노래도 함께 부르고, 작은 선물도 주고, 맛있는 케잌도 나누면서, 축복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공부 후 활동



10월, 11월 생일잔치



성경 영상 시청

**3) 코토누(수도) 소통:** 시골(제)에서 나고 자라 멀리 나가 보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기에, 진즉부터 소풍을 다녀올 마음이 컼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11월 15일(토)에 버스 2대를 대절해서 아이들과 직원들까지 38명이 나들이를 가졌습니다. 가장 어린 12명의 친구들은 아쉽게도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베냉의 특이한 지형은 바다와 근처에 민물과 바닷물이 약간 혼합된 라군이라는 호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맹그로브 숲이 자생을 하면서 생태계의 보고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모터 보트를 타고 맹그로브 숲으로 들어가서 가이드의 이야기도 듣고, 직접 맹그로브 나무에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가까운 해변으로 이동해서 드넓은 대서양을 바라보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제에서 코토누까지 걸어야 한 시간 반인데, 많은 아이들과 심지어 어른들도 바다가 처음이라는 얘기에 괜히 코 끝이 시큰해지기도 했습니다. 웃프게도 바다가 무서워 파도에 발을 담그지 못하고 얼어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해변에서 점심도 먹고, 코토누의 상징인 아마존 동상(높이 18M)과 광장에



대서양 바다 앞에서



보트(빠로그)를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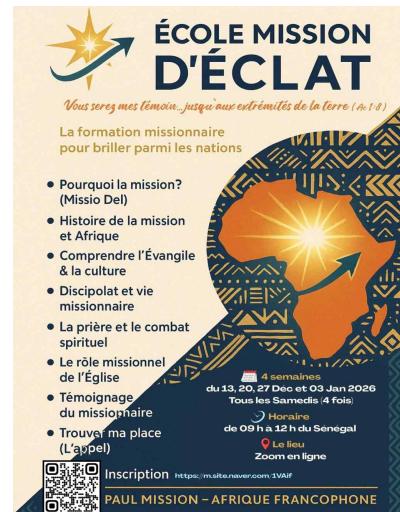
아마존 여전사 동상 앞에서

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번에 반란군과 총격전이 있었던) 대통령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코토누 항구의 벽을 활용해서 조성된 베냉판 벽화 거리를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와 감동이었습니다. 저질 체력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니느라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는 눈이 넓어지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더불어 다음에는 꼭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코닌(Conin fam)족 이야기

1) 베냉 이야기: 김선교사는 베냉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매주 월요일 어성경 강의(구약)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공부해서 딴 전문 강사 자격증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어 감사하고, 매주 2시간 동안 부족한 강의를 함께 해주시는 동료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양선교사는 대학교 강의와 바이올린팀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악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여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두 번 프랑스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부족함도 느껴졌고, 자극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배운 불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4주간 선교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네갈, 베냉, 기니, 차드에서 15명의 인원이 지원하여 4주간 세네갈 선교사님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4주의 선교학교를 마친 후, 내년도에는 세네갈에서 '불어권 현지 선교사 훈련'을 바울선교회 불어권 선교사 훈련원 센터 선교사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역이라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많아서 1월에 세네갈로 가서 몇 개월간 지낼 예정입니다. 아직 모든 게 미정인 상황입니다. 예정대로라면 1월에 훈련생 모집 및 훈련 준비를 하고, 2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합숙 훈련을 한 후, 과정을 잘 수료한 분들을 선발해서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으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 역사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온라인 선교학교 포스터

2) 다엘의 대학 생활 적응: 다엘이는 조금씩 더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내 식당에서 일주일에 3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느라 쉽지 않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밝게 생활하는 다엘이와 가끔 영상을 통화하며 얼굴을 대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곳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잠잠했던 아토피가 조금씩 재발할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잘 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보내는 첫 성단이지만 다엘이에게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3) 라준이의 '뎅기열' 발병: 기도 요청을 통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막내 라준이가 뎅기열에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기숙사 부모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고열을 동반한 감기이거나 어쩌면 말라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열제 처방 말고는 다른 치료제가 없어서,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맨봉이 왔습니다. 기숙사에 아이를 맙겨 놓을 수가 없

어서 양선교사가 다음 날 바로 세네갈에 갔습니다. 과정을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고, 떨어진 체력의 회복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아프리카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0년 차가 되어가면서 이제 제법 적응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긴장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양선교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베냉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베냉의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 예약한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얼마간 더 세네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라준이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하경이가 서운하지 않을까 했는데 씩씩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농구 시즌에 올해는 주전을 기대했는데, 작년보다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11학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라준이 소식



그동안 라준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마지막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을 비롯해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열흘 만에 다시 학

교에 갔지만 열흘 넘게 고열과 여리 증상으

로 체력이 약해져서 쉽게 피로감을 느껴서

조퇴하고 숙소에서 휴식하며 체력을 다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회복됨이 너

무나 감사합니다.

빠르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1학기 잘

마무리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님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

합니다~♥



### 감사 제록

1. 베냉의 쿠데타 시도가 큰 피해 없이 조기에 진압되어 감사합니다.
2. 궁휼의 마음 고아원 인증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감사합니다.
3. 아이들과 직원들이 함께 코토누에서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라준이가 뎅기열에 걸려서 위험한 시간이 있었는데 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베냉과 코닌 가정을 위한 기도제록

1. 이번 쿠데타를 통해서 수면 아래서 떠오르지 않은 불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냉의 모든 국민에게 발전의 결실이 골고루 분배되고, 베냉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2. 베냉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중북부의 이슬람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3. 내년 초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4.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5. 어성경(구약) 강의의 진행, 12월에 진행 예정인 온라인 선교학교와 내년 예정된 현지인 선교사 훈련 과정의 준비와 진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도록
6. 다엘(대학 공부), 하경과 라준(기숙사 생활, 학업, 뎅기열로부터 완전히 회복),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 제(Ze) '궁핍의 마음 고아원' 과 돌봄 센터를 위한 기도제록

1. 고아원의 정부 인증 절차 마무리와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NGO TPMB(바울선교회 베냉지부) 등록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2. 40명으로 늘어난 돌봄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영적 성장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3. 주방 공사 마무리(타일 작업), 울타리 보수 작업, 그리고 네 군데 입간판 설치와 센터 정문의 고아원 간판 설치를 위해서
4.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현지 디렉터 로베와 고토 프루아, 이노씽, 주방 아주머니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2월 성탄절에 즈음하여 5회에 걸쳐 500명의 주변 지역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